



“시민들과 소통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조대영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원 33년 경력에 다선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이 누구보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흰 소의 해인 신축년도 벌써 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강릉시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로 시민의 편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 생활 33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시민 목소리 대변
강릉 북부권은 해양레저스포츠와 관광 수산업으로 개발해야
초선의원 때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가장 기억
지역 반장 수당 신설 조례안 발의도 기억나는 의정 순간

마(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3) 선거구가 지역구인데요,
강릉 북부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년간 이어져온 북부권 소외의식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관광거점 도시·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개발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북강릉지역의 소외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릉~고성~제진 간(111.7 km)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주문진역’ 신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북부권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천혜의 석호인 향호와 연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관광 수산업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강릉시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북부권의 밝은 앞날을 위해 힘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 대상, 강원 지방자치발전대상 등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방향은 무엇이고,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과 지역 반장님들의 수당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했던 점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초선의원일 때 지방자치 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 대상을 받았을 때가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마치고 의원으로 첫 발돋움을 했을 때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주문진 제1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및 제2 농공단지 미분양 사태, 그리고 교항 양돈단지 악취 등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꼭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격려해주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일에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코로나 19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사생활 제한뿐만 아니라 가게 생계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작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릉의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문화 생활로 힐링하며 코로나 우울감에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그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히 챙기십시오! ㉠



“낙후된 지역 없이 고르게 발전하는 강릉의 기반을 다질 것”

의정 초대석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과 11대 후반기 역점을 두는 현안은 무엇인지요?

11대 전반기에 산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강릉이 가진 인프라와 그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실생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이는 산업위원회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11대 후반기에는 강릉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SOC 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울림 아파트~문암정까지 도로 준공, 일몰제로 개선이 가능해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낙후된 지역 없이 고르게 발전하는 강릉’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이라든지 노후 하수관로, 농배수로 시설,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 등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큰 관심…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균형을 맞춰야지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돼 도로 없는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기억나 코로나 19 종식되고 일상 되찾는 날 빨리 왔으면…

성덕동 연탄공장 설립 반대 활동,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특위 위원장 등 생활밀착형 활동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의정활동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시는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바로 강릉시의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은 시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강릉시의회의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릉시의 발전이 시민의 안전과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강릉시민의 높아진 의식을 공감하고 그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약하는 강릉의 현안과 기반 확충에 관한 고민을 지속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많은 성과를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군 비행장 주변 마을이 받는 피해를 당연시하던 시기에 처음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을 받아 왔지만,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작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소음보상기준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이 제정된 것은 소음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을 위한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제때 보상을 받고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도로가 없어 한참을 돌아 나와야 하는 10가구 정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리며 밤낮없이 전력을 다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마침내 도로가 준공되었고, 준공식이 열리던 그 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제 가슴속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의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 같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항상 곁에서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021. 1. 28. ~ 2. 5. / 9일간)



강릉시의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으며,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강릉시 미래성장과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안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별로 안전심사한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상정·의결하며 2021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강희문 의장은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는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강릉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힘든 화훼농가 돕기에도 앞장섰다.

>> 결의문(제2차 본회의 2021. 2. 5)



대표발의 정규민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가 빠르게 악화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피해가 극심해지고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중단까지 이어져 소상공인의 절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송처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의원 발의 조례안



대표발의 김미랑 의원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4조)-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및 역사 계승 사업,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등

강릉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안 제4조 ~ 제5조) (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라) 관련 기관과 단체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대표발의 조대영 의원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 5분 자유발언(제2차 본회의 2021. 2. 5)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 추가지원 적극 검토 요청



최익순 의원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생업현장에서는 절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중앙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과 별도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듯이,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그 결정은 과감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강릉시 도심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윤희주 의원

현재 강릉시는 작년 연말 기준 인구 21만 3,000여명에 차량등록 대수는 11만 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 관련 문제, 다시 말해 주차난 문제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은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원칙을 무너뜨린 예외입니다. '술을 택지' 조성 당시 지구단위 계획 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시안적 행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술을 택지' 조성 후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하여 주차 대란을 초래하고도 유천지구 조성 시 주차장 해소 대책 없이 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차시설 조성 재원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 도시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 내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최우선 확보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과 시민참여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강릉의 주차문화 캠페인도 의회가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강릉시의회 신년 브리핑 개최(1.26.)



제1차 행정위원회 개회, 조례안심사(1.29.)



제1차 산업위원회 개회, 조례안심사(1.29.)



어린이교통안전챌린지 동참(2.5.)



설맞이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2.8.)



강릉시 주민자치 발전포럼(2.16.)



적십자봉사회 성금전달(2.17.)



동해안 해양레저 활성화 세미나(2.19.)